

삼성 'TV 이상의 TV' SUHD TV 출시

“다른 업체서도 퀀텀닷 TV를 내놓는다고요? 중요한 건 양산시기입니다. 저희는 SUHD TV를 당장 내달에 시장에 내놓을 것입니다.”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은 중국 등 해외업체가 한국 기업들과의 TV 기술 격차를 거의 다 따라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최근 폐막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들을 추격 중인 중국업체 간의 기술 격차가 현격히 드러났다. 삼성전자는 LVCC 센터홀에 위치한 2600㎡ 크기의 전시관 입구에서부터 65·78·88인치형의 SUHD TV로 구성된 하이라이트 존으로 관람객을 맞이했다.

SUHD TV는 퀀텀닷(quantum dot·양자점)과 삼성전자의 양산 화질 기술로 탄생한 TV다. 퀀텀닷은 기본적으로 LCD(액정표시장치) 기반이지만 색재현율이 100%로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못지않게 뛰어나다. 입구 한편에 설치된 88인치 SUHD TV에서는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가 SUHD TV에 최적화된 화질로 재생되고 있었다. 성일경 삼성전자 글로벌PM그룹 상무는 “SUHD

TV를 한 마디로 설명하자면 TV 이상의 TV”라며 “‘라이프 오브 파이’의 감동도 SUHD TV로 재탄생한 자신의 영화를 보고는 ‘내가 표현하려던 색’이라고 감탄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전시관에서 100여m 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LG전자가 삼성에 못지않은 2044㎡ 크기의 대형 전시관을 마련해 관람객을 유혹했다. 삼성전자와 달리 LG전자는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대중화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번 CES에서 다양한 크기(77·65·55인치형)와 디자인(가변형·곡면·평면)의 올레드 TV 제품군을 공개했다.

LG전자는 기존 LCD 기반 UHD TV와 올레드 TV를 나란히 배치해 화질의 우수성을 관람객이 직접 느끼도록 했다.

하이얼과 하이센스, 창홍 등 중국의 대표적인 가전업체들도 마치 ‘끝까지 추격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듯 삼성과 LG전자 주변에 전시관을 마련했다. 중국업체들은 이번 CES TV 부문의 키워드로 꼽히는 ‘UHD(4K) TV의 확산’을 반영하듯 다양한 크기의 4K TV를 대표제품으로 내세웠다.

TV 메이저 가운데 점유율 3위인 창홍은 빨간 색상의 전등등과 조형물 등으로 중국 넘새가 물론 나게 부스를 꾸몄다. 다양한 크기의 4K TV는 물론 한쪽에는 4K QLED TV가 설치돼 있었다. 이 TV는 SHUD TV처럼 퀀텀닷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TV로 화질이 일반 4K 제품에 비해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달리 양산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일종의 시제품에 불과했다.

창홍 부스에서 제품 설명을 하고 있던 티나(Tina)씨는 퀀텀닷 TV의 양산시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 제품은 앞선 기술력을 보여주지 위한 것이지만 양산 제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언제쯤 가능하겠느냐”고 묻자 “예측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인근에 위치한 하이센스 부스도 마찬가지였다.

하이센스는 일반 4K TV와 함께 4K ULED TV 제품을 주력으로 미는 모습이었다. 직원은 ULED가 올레드 기반 TV인지를 묻는 질문에 “LED 기반 TV”라고 짧게 답했다. 또 다른 중국 TV업체인 TCL과 하이얼 등도 퀀텀닷 또는 올레드 TV의 시제품을 전시했을 뿐 주력은 4K TV였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

삼성, 색 100% 재현 앞선 기술 과시

LG는 올레드 TV 대중화 선언

중국 업체들은 4KTV 내세워



단통법 초라한 성적표

이통사, 마케팅 비용 감축 효과 적어...실적전망 하향 조정

국내 이통통신사가 시장의 기대와 달리 연말이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축 효과를 크게 누리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을 계기로 단통법이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가운데, 그나마 단통법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가 기대됐던 이통사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전망치마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 20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 3곳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을 합산하면 총 8315억원이 될 것으로 증권사들은 전망했다. SK텔레콤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0.8% 늘어난 5137억원이다. KT는 1516억원의 영업이익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흑자로 돌아섰고, LG유플러스는 1년 전보다 33% 늘어난 166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 3개사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이 1년 전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애초 시장이 예상했던 단통법에 따른 마케팅 비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전망이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내다보는 이통사 3곳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단통법 시행 한 달을 맞았던 지난해 10월 말 9389억원(3개사 합산 기준)에서 그해 11월 말 9524억원, 12월 말 9562억원까지 올라갔지만 최근 8000억원 대로 떨어졌다. 증권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단통법이 시행됐음에도 지난해 4분기 판매촉진비가 늘어나 전체적인 마케팅 비용이 과거보다 크게 줄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자 유치비용 중) 단통법으로 규제 대상인 단말기 지원금 변동성은 줄었지만 대리점에 대한 판촉비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통사들이 중도 해지 위약금 면제 요건을 출시하거나 멤버십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단통법 초기 국면에 대응하면서 이와 관련한 일회성 비용도 발생했다. /연합뉴스

이통사 무한 속도전쟁

삼성, 4배 빠른 갤럭시노트4 S-LTE 출시



4배 빠른 LTE 시대가 열린다. 지난해 6월 광대역 LTE-A 서비스가 개시된 지 7개월 만이다.

21일 이통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3밴드 LTE-A를 지원하는 갤럭시노트4 S-LTE를 공식 출시했다. 3밴드 LTE-A는 3개 대역 주파수 묶음을 Carrier Aggregation·CA)을 적용해

최고 300Mbps(초당메가비트)의 속도를 구현했다. 이는 기존 LTE의 4배, 3세대(3G)보다는 21배 빠른 것이다.

갤럭시노트4 S-LTE는 기존 모델의 장점인 S펜과 고성능 카메라 기능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추가됐다. 출고가는 95만7000원이다.

전용 단말 출시일이 확정됨에 따라 이통 3사의 고객 유치전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전용 단말 출시에 맞춰 21일부터 3밴드 LTE-A 상용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100명 규모의 고객체험단을 상대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한 SK텔레콤도 단말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공격적으로 판촉에 나설 계획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삼성전자 측과 공급 협상을 하고 있으며, 일단 이번 주중 LG전자의 ‘G플렉스 2’로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임동홍기자 exian@

금주의 추천앱

새해 이맘때는 소모적인 일들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이다.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오늘은 당신의 창의력에 도움을 주는 앱을 소개한다.

behance /제작: behance/아이폰, 안드로이드

세계 최고의 창의적 인재들에게 영감을 받고 싶다면 이 앱을 이용하자. 디자인, 건축, 사진, 광고 등의 수백만 개의 프로젝트를 검색할 수 있는 앱이다. 관심있는 크리에이터를 팔로우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도 있다.



거인의 서재/제작: flatcle/아이폰, 안드로이드

독서와 사색도 창의성의 싹을 틔우는데 도움이 된다. 거인의 서재는 내가 읽었던 책을 분류하여 메모하고, 북커뮤니티를 통해 독서 토론을 할 수 있다. 또한 베스트 셀러 목록 제공 등으로 나에게 맞는 책을 찾을 수 있다.



mindmeister/제작: meisterlabs/아이폰, 안드로이드

창의적인 생각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기록방식도 매우 중요하다. 이 앱은 마인드맵 방식으로 데스크탑, 모바일 관계없이 기록하고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준다.



DESIGN ZOOOS 제공: 디자인즈스
ZOOOS (대표 정우주 tiger@designzoos.com)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울 대리석시공, 신축

월수익 500만
매가 6억6천
(보4천, 용자1억2천)

1. 전대정문 1분코너 룸21개 월 7억5천
2. 용봉지구코너 룸 21개 (1층상가, 4층주택) 매 11억 (토지 105평, 건180평)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북구 구호전사거리 중심상가 7층
대지 100평/건물 580평
월수익 1,00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1,800만 수익 발생
매가 13억(보 2억, 용 6억)

1. 나주 2층 학원 상가건물 1층 6칸, 2층 4칸 영강초교앞 월 수익 200만, 매가 2억8천	4. 수원지구 1층 18평 대방 5차APT후문(임대가능) 매가 3억5천
2.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5층 보 2억, 월수익 1,000만 매가 20억	5. 수원지구 4층중 3층 85평 보 2천, 월 200만, 용 2억5천 매가 3억5천
3. 목포 용해동 전원주택 매매 대지 310평/건물 2채 매가 2억8천	6. 수원지구 4층중 3층(62평) 롯데마트 대로변(보 2천, 월 150) 매가 2억5천

한신공인중개사 062-527-7600

나주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교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할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8천

010-6832-9700

상무지구 사무실임대 5층(100평)

- ①서구 치평동 중심도로 이면코너 (현대자동차위)
- ②주차장 고정완비 E/L 시설됨
- ③임대료 보3천 130만 (상무지구서 제일 저렴함)
- ④사무실임대 치평동 우리은행위 학원, 모든업종가 50평, 고정주차있음 시설비, 리모델링 2천 60만

010-6670-9800
062)382-5500

경매교육 (개강) 제1기

한국경매학원(상무)
(상무지구 오피스)

- ① 기본 경매 강의
- ② 바로 실천 실시

평생실전스터디반
(입찰부터~매매임대 리모델링)
매주 수요일 10시

010-6670-9800

경매교육 (운암동) 대한경매학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금, 토) 개강
⑤ 오전10시~오후 7시
⑥ 오전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062-513-49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①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평가 10억 최저가 5억7천
- ②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평가 17억 최저가 9억5천
- ③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평가 2억5천 최저가 1억4천
- ④ 동구 대인동 (토 105㎡, 건 106㎡) 감평가 1억4천 최저가 1억4천
- ⑤ 동구 계림동 (토 445㎡, 건 1558㎡) 감평가 10억 최저가 7억5천
- ⑥ 북구 운암동 (토 273㎡, 건 247㎡) 감평가 2억4천4백 최저가 1억7천3백
- ⑦ 북구 중흥동 (토 133㎡, 건 253㎡) 감평가 1억7천6백 최저가 1억1천3백
- ⑧ 남구 서동 (토 306㎡, 건 90.18㎡) 감평가 1억6천 최저가 1억1천
- ⑨ 광산구 소촌동 (토 400㎡, 건 294㎡) 감평가 3억7천 최저가 3억7천

임야

- ① 북구 매곡동 토지 451 감정 1억1천, 최저 7천8백

경매 같이 하실 분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